

<우리나라 역사 속의 괴질>

두창 · 콜레라 · 나병 창궐

글_ 신동원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shindongwon@kaist.ac.kr

정체 모를 역병의 이름은 '괴질'

1821년(순조 21년) 8월 13일, 평안도에서는 다급하게 계장(啓狀) 하나를 조정으로 날렸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평양부 성 안팎에서 지남 그름에 문득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설사·구토를 하고 근육이 비틀리면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열흘 안에 1천여 명이 죽게 되었으나 치료할 약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유행이 그칠 기미가 없고 인근 마을 곳곳에 번졌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열 명 중 한, 둘을 빼놓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평안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읍에 전염되는 속도가 마치 불이 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관대작 사망이 열명 이상이고 일반 관리와 백성의 사망은 부지기수입니다. 대략 10만 명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괴질은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조선왕조실록, 순조21년 8월 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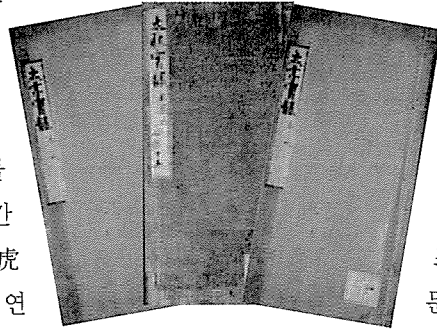
즈 정체불명의 역병이 조선 북부지방을 휩쓴다는 내용이었다. 번지는 속도가 불길과 같다는 것은 이 역병의 엄청나게 빠른 전염 속도를, 치료할 약과 방법이 없고 기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병에 속수무책임을 말한 것이다. 또 설사, 구토하고 근육이 비틀리면서 순식간에 죽는다는 것은 병의 끔직한 고통을, 병 걸린 열 명 중 여덟, 아홉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치사율을, 고관대작을 비롯하여 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미증유의 피해를 표현한 것이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은 정식 명칭이 없었다. 다만 괴질(怪疾)이었다. 이 괴질이란 이름에는 불안, 공포, 고통, 죽음, 그리고 허둥댐이 복합되어 있었다.

우리는 안다. 이 역병이 콜레라였음을. 의학사학자는 1821년, 콜레라가 조선에 처음 침입한 것이라 말한다. 이 병은 인도의 갠지스 강에서 비롯하여 중국을 거쳐 그 해 음력 7월에 조선 북쪽 국경을 넘어왔다. 음력 8월 13일현재 평양을 강타하고 있었으며, 이후 음력 9월까지 서울과 경기·영남지방으로 퍼져나갔다. 겨울이 되자 잠복해 있다가 이듬해 늦봄 이후 호남·함경도·강원도 등 남은 지역을 휩쓸었다. 이 콜레라의 전체 피해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유행이 30여 년 후인 1858년에도 있었다.

조선시대 12가지 괴질에 속수무책

이 괴질은 괴질이라는 이름을 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래 정체 모를 질병에 붙이는 괴질이란 이름이 이 병을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될 정도였다. 이후의 대유행 때에는 이 병을 여역(痧疫)이라 불렀다. '물에서 피어오르는 나쁜 기운'인 '여(痧)'라는 글자가 선택된 것을 보면 이 병의 원인을 물과 관련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토사곽란' 또는 '곽란'이라는 이름을 차용해 이 병에 붙였다. 구토를 하고(토사) 근육이 뒤틀리는(곽란) 증상의 유사함에 근거한 것이다. 개항

이후 서양의학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 괴질은 콜레라라는 세계의 보편적인 명칭을 부여받았다. 서양에서 ‘콜레라’라는 원 뜻이 심한 설사를 뜻하므로 이는 토사곽란과 상통하는 명칭이다. 이 시기 콜레라는 한자음인 호열자(虎列刺)로 불리었다. 한자 음역(音譯)은 묘해서 단순한 음역이 아니라 의역(意譯)의 의미까지 담긴다. 호열자는 “호랑이가 물어 찢어낸다”고 풀이될 수 있다. 민간에서는 호열자를 줄여서 흔히 호역(虎疫)이라 불렀다. 이는 호환(虎患)을 연상하는 단어이다.



영문 모를 질병의 갑작스러운 대유행에는 반드시 괴질이란 용어를 우선 찾아 쓴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병의 유형 상황을 어떻게든 정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괴질’ 하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전의 ‘괴질’을 떠올리게 된다. 괴질이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로 명명된 순간 사람들의 막연한 공포감은 줄어든다. 또 다른 괴질인 AIDS의 경우도 비슷하다. 물론 이런 병의 감염 위험이 명칭만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나, 괴질이라는 말에 묻어 있는 끔찍한 공포가 희석되는 한편, 미지의 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 속엔 ‘결핵’도 한 몫

조선시대의 역병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세 가지만 추린다면 어떤 것이 들어갈까? 먼저 후보군을 작성해보자. 수많은 질병 중 대략 결핵, 나병,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매독, 발진티푸스, 백일해, 성홍열,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유행성 감기), 장티푸스, 두창(천연두), 콜레라, 페스트, 페디스토마, 홍역 등 17가지 질병이 그 후보군을 이룬다.

이 가운데에서 페스트와 결핵은 1차 탈락이다. 1900년도를 전후하여 국내에도 페스트가 상륙했다는 말이 있었

지만, 중세유럽을 휩쓸었던 그 무시무시한 페스트는 이 땅에 상륙하지 않았거나 설사 상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나도향의 생명을 앗아간 결핵! 이 병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질이 나쁜 질병이다. 일제시대 이후 고된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 산업화, 도시화와 숙명적으로 관련을 맺었던 질병으로, 식민지 조선이 세계 제일의 사망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까지 만해도 결핵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속아 낼 수 있는 질병은 페디스토마와 백일해이다. “기생충이 없으면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기생충 보유율이 매우 높았다. 그 가운데에는 가장 위험이 높은 질병인 페디스토마 환자도 적지 않았다. 가래를 토하는 증상 때문에 페디스토마는 전통적으로 토담수(吐痰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뚜렷하게 페디스토마를 인식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으로 보지도 않았다. 백일 동안 해수,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라고 하는 이 병은 고려 때 『향약구급방』에서부터 보이는 유서 깊은 질병이다. 조선사회에서는 이 병을 대단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고, 한의학에서도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파악하였다.

이제 나머지 12가지 질병은 조선의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질병이다. 그래도 그것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나병, 말라리아, 매독,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 두창, 콜레라, 홍역이 좀더 무거운 것에 속하고, 디프테리아, 성홍열,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좀 약한 것에 속한다.

사실, 장티푸스는 가장 흔한 병이었다. 조선시대의 의학으로는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 이질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고 이들을 대략 온역(瘟疫)이라 불렀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은 어렵פות하게 구별된다. 조선 전기에 이 병은 급성의 성격을 띠었고, 많은 사상자

를 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서는 거의 풍토병화하였으며, 병의 성격도 많이 약해졌다. 간헐적으로 소규모 유행에 그친 질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균성 이질의 경우에도 역사는 매우 오래되나 그 유행성에 대해서는 의학적·사회적으로 그다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디프테리아는 한의학에서 급후비, 전후풍 등의 이름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대유행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성홍열은 무거운 부류로 올려도 괜찮을 질병이다. 민간에서는 이를 당홍역(唐紅疫), 양독(洋毒)이라 불렀다. 17세기에는 중국에서 온 못된 병이라는 뜻에서 당홍역이라 했고, 19세기에는 서양 오랑캐가 가져온 것이라 해서 양독이라 부른 것이다. 성홍열은 우리 나라에서는 허준이 『백역신방』에서 객관적 관찰을 한 것으로, 정약용이 마진(癩疹)과 이를 감별하는 논의를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17세기 대유행 때에는 끔찍함이 극에 달했으나, 당홍역은 홍역, 풍진 등 다른 질병과 섞여 있어서 분명한 성홍열의 유행임을 확인해주는 기록은 많지 않다. 나병, 말라리아, 매독,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 두창, 콜레라, 홍역 등은 우리 역사에서 모두 나쁜 질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들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족 쓰러뜨린 콜레라, 지독히 혐오스러워 했으며 아이까지 잡아먹었던 나병, 모든 사람이 다 앓는다 해서 백세창(百世瘡)이라 불리었던 두창, 이러한 병은 역사상 너무나도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역병 유행 최초기록은 백제 온조왕 때

역병은 인류 문명의 소산이며, 한국 역사에서의 전염병도 한민족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집단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상 보이는 끔찍한 역병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인간 집단을 서식처로 삼아 번식하는 역병의 존재마저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가축을 기르고 농경 생활에 접어들어 사회적 집단을 이룬 그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미생물 집단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 땅에서



문명을 꾸린 한민족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병은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 기록이 남겨진 초창기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며, 최초의 유행 기록은 백제 온조왕 4년(B.C. 15년)이다. 민족의 성장과 역병의 대유행은 같은 궤도에 있다. 역병 예방에 특별한 비책이 없었던 전통 사회에서 역병의 대유행이 인구의 증가, 도시와 발달, 교통과 상업의 발달, 외래 교역의 증가, 전쟁의 빈발 등과 분명한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몇 백만에 달하는 전체 인구, 그 중에 몇 십만에 달하는 수도 인구 등의 존재는 역병을 숙성시킬 조건이 된다. 우리 나라 전통사회의 인구는 계속해서 완만하게 성장했다. 따라서 삼국시대보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조선 초보다는 조선 후기에 역병 유행 기록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단순한 기록의 과다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유행 빈도와 강도가 더 컸음을 반영한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괴질로 쓰러진 촌부를 치료하는 허준(TV 드라마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같이 했다는 말에서 감지되듯, 역병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 존재로 국한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역병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역병의 존재가 가볍지 않았듯, 역병의 문화는 매우 풍부한 모습을 띠었다. 이에 역병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가 하는 질병관(疾病觀), 역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개인적, 국가적 대책과 의학적, 종교적 대책, 역병에 걸려 죽거나 산 것을 설명하는 생사관 등이 포함된다. 57



글쓴이는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박사, 한국 과학사), 케임브리지 니덤 동아시아과학사 연구소 객원 연구원, 현 역사비평 편집위원